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혜림¹, 한유진^{2*}

¹서울시립 노원 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 ²명지대학교 아동학과

The Effect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Role Stereotype on Sexual Assertivenes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Hye-Lim Lee¹, You-Jin Han^{2*}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²Myonj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성문화와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성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대생들의 성적 권리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 또한 함께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적자기주장과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48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r=-.24, p<.01$), 성적자기주장($r=-.39,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r=.20,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45, p<.001$)을 미칠 때,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beta=.42, p<.001$)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Sobel test: $Z=.9.16, p<.05$). 따라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 능력 향상을 위해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성역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아존중감 관련 상담의 필요성을 시사 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ex culture and the sexual rights of women, examining the gender-role stereotype that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sexual righ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and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self-esteem.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ertiveness, and self-esteem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four-year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Four hundred eighty-two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diated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effects of gender-role stereotypes on sexual assertiveness.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that the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der-role stereotype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Self-esteem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xual assertiveness. Second, self-esteem was found to be a partial mediating factor when the gender-role stereotyp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assertiveness. Therefore, a coping strategy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nder-role stereotype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sexual assertiveness skill of female students.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ed for sex role-related education programs or counseling on self-esteem.

Keywords : Gender-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lf-Esteem, Female, Female University Student,

본 논문은 제1저자 이혜림의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Corresponding Author : You -Jin Han(Myonji Univ.)

email: yjhan@mju.ac.kr

Received September 15, 2020

Revised October 15,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1

1. 서론

최근 '마녀사냥', '연애의 참견'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성친구와의 성관계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흥미 있는 이슈로 언급되며, 남성과의 잠자리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대중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의 성생활을 드러내는 것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며 숨겨야 했던 과거의 모습과 매우 대조된다. 또한 여성들은 '미투 운동'과 같이 성희롱, 성폭력 등 권력으로부터의 불합리한 성적 피해를 당당하게 고발하며 자신의 성적 권리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성 권리 또한 남성의 성 권리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현대 여성들의 필수 능력으로 성적자기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적자기주장은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자율성에 기초하여 개인적인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성적 욕구 및 충동성을 적극적인 태도로 통제하며 조절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적자기주장은 개인의 성적 건강과 성적 자율성 또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전략을 포함한다. 효과적인 성적자기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성교제 시 원하지 않는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주장은 연인 관계에서 성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인간의 성만족도 및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2].

특히 성적자기주장은 급변하는 성 문화 속에서 다양한 성 행동을 경험하는 현사회의 20대 청년 남녀에게 핵심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이후 이성과의 접촉이 왕성해지는 시기이지만 미처 이성교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성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3]. 따라서 대학생들은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인 성적자기주장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여대생은 성적 상황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이거나, 자신의 성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여대생들은 성 문제 관련 정보 부재로 인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들의 심리적 고통이 가중된다는 보고가 있다[4]. 이는 여대생들의 성적자기주장을 더

욱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근거로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자기주장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는데, 이 중 성역할고정관념은 개인의 외적 요인으로서 성적자기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성역할고정관념에 대한 정의는 '구성원들이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성별에 따라 특성과 역할을 구분하는 태도'이다[5]. 이러한 태도는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르다는 신념을 갖게 하고 남성과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개인의 자아개념의 형성 및 성 역할 행동에 영향을 준다. 특별히 한국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 사회화될 때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6]. 이러한 성역할고정관념의 영향력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성적 관계에서 성행위를 주도적으로 하는 남성의 역할, 이를 따르는 여성의 역할이 있다는 성역할고정관념이 있어왔다. 여성이 이러한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여성성을 내면화할 경우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성적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게 된다[7]. 이는 이성과의 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성행동을 응낙했을 때 여성은 정서적으로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8].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연인과 원활한 성적 의사소통을 할 때 성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9].

개인 내적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동시에 성역할고정관념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성 접촉과 자기주장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 성 접촉과 자기주장성은 유의미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성역할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개념인 양성평등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스스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11]. 한편, 성 고정관념이 전통적일수록 남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여아에게는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12]. 따라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성역할고정관념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이 내리는 판단에 신뢰를 가지고 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여 보면 성역할고정관념과 자아존중감, 성적자기주장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과 성적자기주장과외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남녀 대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학생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 성적자기주장 등 이성 교제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여대생들의 의식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주는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대생들이 성적 상황에서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이성과의 관계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대생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장면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담 접근이나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설문은 2018년 10월 0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총 52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총 506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1개 이상의 척도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혹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여대생이 응답한 설문지 24부를 제외하여 4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 도구

2.2.1 성 고정관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 고정관념 척도는 김동일[13]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 작업이 된 것이다.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적 성역할 특성 6문항, 사회적 성역할 특성 5문항, 직업 및 외형적 특성 9문항, 사회 심리적 특성 7문항, 지적 특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고정관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70~.83이었으면,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이다.

2.2.2 성적자기주장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자기주장 척도는 Patricia[14] 등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 작업이 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구성 된 것이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요인 6문항, 일정한 파트너와의 성경험에서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는 요인 6문항, 원하는 성적 접촉을 주장하는 요인 6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성적자기주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Cronbach's α)는 .74~.82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9이다.

2.2.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5]에 의해 개발되고 표준화 작업이 된 것을 전병제[16]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 5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Grade	1st	105	21.78
	2nd	177	36.72
	3rd	127	26.35
	4th	73	15.15
Age	≤20	262	54.36
	21-24	209	43.36
	25-28	10	2.07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Yes	141	29.35
	No	341	70.75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성적자기주장,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의 정도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성역할고정관념의 평균은 58.62점, 표준편차는 11.42점으로 나타났다. 성적자기주장의 평균은 59.31점, 표준편차는 6.36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0.73점, 표준편차는 6.7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Gender-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lf- Esteem

Variable	M±SD	Min	Max
Gender-Role Stereotype	58.62±11.42	30	91
Sexual Assertiveness	59.31±6.36	34	73
Self- Esteem	30.73±6.75	8	45

3.2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자아존중감과 성적자기주장 간의 관계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r=-.24, p<.01$)과 성적자기주장($r=-.39, p<.01$)에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은 성적자기주장($r=.20, p<.01$)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성적자기주장이 낮아짐을 의

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적자기주장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Gender-Role Stereotype	Self- Esteem	Sexual Assertiveness
Gender-Role Stereotype	1	-.24 ($p<.01$)	.39 ($p<.01$)
Self- Esteem	-.24 ($p<.01$)	1	.20 ($p<.01$)
Sexual Assertiveness	-.39 ($p<.01$)	.20 ($p<.01$)	1

3.3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행하였고,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beta=-.24,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beta=.45,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적자기주장에 유의한 영향($\beta=-.12,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감소하였고($\beta=.45, p<.001$),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beta=.42, p<.001$). 그러므로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obel 검증결과 또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9.16, p<.05$). 즉,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공선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공차한계(Tolerance)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산팽창요인(VIF)은 1.02-1.00으로 10이하이고, 공차한계(Tolerance)는 .98-1.00로 .1이상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잔차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가 1.89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 간 상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elf- Esteem

Step	Variable	β	R ²	F
Step 1	Gender-Role Stereotype → Self- Esteem	-.24 ($p < .001$)	.06	15.04 ($p < .001$)
Step 2	Gender-Role Stereotype → Sexual Assertiveness	.45 ($p < .001$)	.17	68.09 ($p < .01$)
Step 3	Gender-Role Stereotype → Sexual Assertiveness Self- Esteem → Sexual Assertiveness	.42 ($p < .01$) -.12 ($p < .01$)	.19	49.29 ($p < .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 성적자기주장,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은 성적자기주장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이 전통적이고 경직되어 있을수록 성적인 상황에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한 여성은 성행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거절하는 것과 자기주장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17]와 일치하며, 성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성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연구결과[18]를 지지한다. 또한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으로 양성적인 성 유형을 가진 사람은 자아개념이 높고,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높아 정신 건강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21]와 일맥상통한다. 즉,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성에 맞추려고 하는 내면적 동기가 보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아 개념을 확립할 때 구속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22]. 또한 특정한 성 역할을 내면화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모두에 대한 역할을 내면화한 사람은 두 성의 특성을 결합하여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유능감이 높고 자신감을 갖으며 이에 따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높아진다

[23]. 여대생의 성적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성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 시 성적자기주장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19]와 일치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에게 높은 가치를 인식하고 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장 혹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진다는 연구결과[20]를 지지한다.

둘째,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구체적인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성역할고정관념이 성적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대생의 성역할고정관념은 성적자기주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적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 역할에 대한 성 평등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때 남성과의 성 접촉 상황 시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이러한 자기주장성을 강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형성 과정에서 정립되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상황에서의 자기주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24]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있는 여대생이 성 역할에 대한 관념을 사회가 확립시켰을 경우, 원치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성적자기주장을 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그에 따라 자신의 의사 및 주장에 대한 확신이 낮아져 성적인 상황에서 성행동을 할 때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결정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요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장면에서 이성과의 성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대생에게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양성 균형적이고 유연한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의 정도 또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대생 내담자에게 사회가 규

정한 성 역할에 자신의 성 역할 관념을 맞추며 이를 통해 성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경직된 사고로 판단하고 성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가치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접근 및 상담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H. Choi,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9-10, 2005.
- [2] S. MacNeil, E. S. Byers,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ual problems, communication, and sexual satisfaction", *The Canadian Journal of Human Sexuality*, Vol.6, No.4, pp.277-283, 1997.
- [3] S. H. Cho,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who Experienced Dating", Ph.D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pp.85-90, 2012.
- [4] O. S. Yoo, "An Explanatory Model of Unwanted Sexual Compliance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6, No.4, pp.793-812, 2004.
- [5] H. S. Chae, "Correlations amongs sex role stereotypes, sex role identity, self-esteem and the percep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students at middle and high school",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pp.8-9, 1999.
- [6] Y. H. Kim,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Effect of the Consciousness-raising Program for Improving Androgyny of Teacher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8, No.1, pp.1-22, 2005.
- [7] A. K. Kiefer, D. T. Sanchez, "Scripting sexual passivity: A gender role perspective", *Personal Relationships*, Vol.14, No.2, pp.269-290, 2007.
DOI: <https://doi.org/10.1111/i.1475-6811.2007.00154.x>
- [8] E. A. Impett, L. A. Peplau,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No.40 Vol.1, pp.87-100, 2003.
DOI: <https://doi.org/10.1080/00224490309552169>
- [9] S. MacNeil, E. S. Byers, "Dyadic assessment of sexual self-disclosure and sexual satisfaction in heterosexual dating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No.22, Vol.2, pp.169-181, 2005.
DOI: <https://doi.org/10.1177%2F0265407505050942>
- [10] S. K. Le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51-52, 2001.
- [11] S. K. Yoo, H. S. Lee, M. H. Hwang, S. H. Hong, "A Study on the Structural Model of Parental Attachment, Gender Roles,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 Academically Talented Female Student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o.18, Vol.3, pp.357-380, 2007.
- [12] C. I. Joong, "Sex Role Stereotypes and Sex Differences in Juvenile Delinquenc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o.16, Vol.1, pp.35-76, 2005.
S. J. Ha, S. Y. Park,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Girls' Levels of Compete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Vol.18, No.1, pp.133-149, 2011.
- [13] D. I.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stereotypes and authoritarianism", *The Korean Cultural Studies*, Vol.63, No.2-3, pp.45-58, 1993
- [14] J. M. Patricia, Q. Kathryn, L. H. Lisa, W. Laura, M. G. Diane, R. G. Pemela, J. B. Gary,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No.4, pp.790-804, 199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73.4.790>
- [1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Vol.11, pp.326, 1965.
- [16]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nonchong*, Vol.11, No.1, pp.107-130, 1974.
- [17] E. A. Impett, L. A. Peplau, "Sexual compliance: Gender, motivational, and relationship perspectives", *Journal of sex research*, Vol.40, No.1, pp.87-100, 2003.
DOI: <https://doi.org/10.1080/00224490309552169>
- [18] S. M. Park, W. Y. Song,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to the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ology*, Vol.17, No.2, pp.265-281, 2012.
- [19] B. M. Kim,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 Vol.21, No.1, pp.11-22, 2014.
K. I. Lee, S. M. Choi, S. M. Chun A path model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ology*, Vol.22, No.4, pp.551-567, 2017.
A. R. Chu, Sexual Assertiveness and Codependency: Students From Various Educational Levels,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pp.35-37, 2013.
- [20] Y. R. Lin, I. S. Shiah, Y. C. Chang, T. J. Lai, K. Y. Wang, K. R. Chou, Evaluation of an assertiveness training program on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assertivenes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atisfaction. *Nurse education today*, Vol.24, No.8, pp.656-665, 2004.
DOI: <https://doi.org/10.1016/j.nedt.2004.09.004>
- [21] O. B. Jung, "Sex role identity and self esteem among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No.24, Vol.2, pp.123-137
S.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No.42, Vol.2, pp.155-162, 1974.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h0036215>

T. R. Buckley, R. T. Carter, “Black adolescent girls: Do gender role and racial identity: Impact their self-esteem”, *Sex Roles*, No.53, Vol.9-10, pp.647-661, 2005.

DOI: <https://doi.org/10.1007/s11199-005-7731-6>

X. Huang, X. Zhu, J. Zheng, L. Zhang, “Relationship among androgyny, self-esteem, and trait coping style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NO.40, Vol.6, pp.1005-1014, 2012.

DOI: <https://doi.org/10.2224/sbp.2012.40.6.1005>

- [22] S. L. Bem,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No.42, Vol.2, pp.155-162, 1974.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h0036215>

- [23] S. L. Bem, “On the utility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assessing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No.45, Vol.2, pp.196-205, 1977.
DOI: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006X.45.2.196>

- [24] L. A. Hall, J. B. Kotch, D. Browne, M. K. Rayenss, “Self Esteem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Stressors and Esteem as on Depressive Symptom in Postpartum Mothers”, *Nursing Research*, No.45, Vol.4, pp.231-238, 1996.

한 유 진(You-Jin Han)

[정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석사)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박사)
- 2016년 3월 ~ 2017년 3월 : 명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센터장
- 2004년 3월 ~ 현재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학, 놀이치료, 부모교육

이 혜 림(Hye-Lim Lee)

[정회원]



- 2019년 2월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학과 (아동가족심리치료학과 석사)
- 2018년 1월 ~ 2019년 3월 : 아동가족 심리치료 연수고 연구원
- 2019년 6월 ~ 현재 : 서울시립노원 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 놀이치료사
- 2019년 8월 ~ 현재 : 구리언어발달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사

<관심분야>

아동학, 놀이치료